

한우사육동향과 일본의 생존전략

이종헌



한국종축개발협회
정보기획실장

한우를 생각하면 언제나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맑은 시냇가 주변에 항상 파랗게 자라나 있는 먹이를 찾아다니며 길다란 혀를 휘감아 돌려 풀을 뜯으며 여유롭게 거니는 모습들이 눈앞에 아련히 떠오른다.

요즈음도 지방을 여행하면서 이따금 들판에 나와 있는 누렁이를 볼 수는 있으나 그 옛날의 낭만을 그리기가 두려워 진다.

소값이 하락 할 때는 돈벌이가 안된다고 난리를 치고 송아지 값이 올라가면 비육 해야 돈이 남을지 모르겠다고 허우적대는 모습에서 몇 십년전의 추억은 사치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매일같이 걱정만 하면서 소를 길러야만 하는가? 아무리 마음속에 천만 근의 근심거리가 있어도 이를 해결 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양축농가가 될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주변환경을 살펴가면서 언제

나 새로운 자세로 현실을 바로 보면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양축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히 일부분이지만 한우 주변의 여건을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바람직한 일인지 살펴볼도록 하자.

96년 12월 2,843천두이던 한우는 4년이 지난 2000년 6월에는 100여만 두나 줄어 1,801천두이다.

그동안 O-157, 광우병, IMF파동을 비롯하여 최근의 구제역 발생까지 우리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게다가 언제나 망령처럼 따라붙는 쇠고기 수입자유화는 더 이상 우리가숨을 누르지 않아도 터져 버릴 것만 같다.

이 엄청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소규모 사육농가 위주로 사육을 포기하는 사태가 계속 이어지

면서 번식기반의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호당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농가는 비육농가이며 이들은 송아지 생산보다는 생산된 송아지를 구입하여 비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번식기반은 소규모(1~10두)사육농가로부터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들의 사육포기는 곧바로 번식기반을 어렵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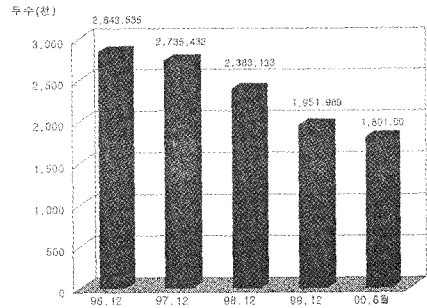
사육두수 감소현상중에 두드러진 내용은 암소 도축 율의 증가에 의한 번식용 암소가 감소하는 현상이 특이하다.

따라서 2세이상의 암소사육두수는 96년 12월에 1,209천 두에서 2000년 6월에는 701천 두로 감소하였다.(96년대비 약 58%)

1~2세의 번식 가능한 암소까지 포함해 보아도 785천여두 밖에는 되지 않는 형편인데 이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암소가 번식에 쓰이지 않고 비육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500kg의 암소가 2,906천원이며 같은 체중의 수소비육우는 2,607천원(2000. 8. 22일 현재)으로 생체 1kg당 가격으로도 암소가 약 700여원이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부당스러워 진다.(표1,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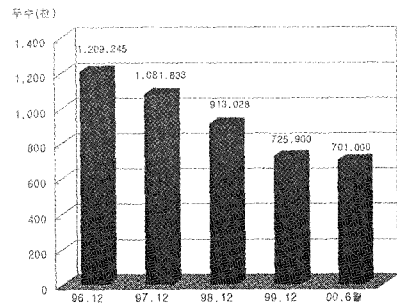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는 암소가 귀해지고 송아지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98년(암송아지 535천원, 수송아지 658천원)과 99년(암:774천원, 수:1,024천원)인데 비하여 현재 암송아지 전국평균거래가격이 1,174천원, 수송아지 1,331천원으로 98년도와 비교하면 2배이상이나 값이 올라 암소를 비육 하던 농가에서도 송아지 가격상승을 노리는 번식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번식기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한우 사육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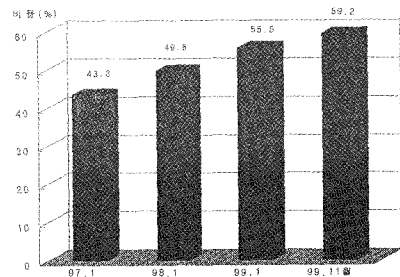
연도	96.12	97.12	98.12	99.12	2000.6월
두 수	2,843,535	2,735,432	2,383,133	1,951,989	1,801,000
비율(%)	(100)	96.2	83.8	68.7	63.3

[표 2] 2세이상 암소 사육두수



연도	96.12	97.12	98.12	99.12	2000.6월
두 수	1,209,245	1,081,833	913,028	725,900	701,000
비율(%)	(100)	89.5	75.5	60.0	58

[표 3] 암소 도축율



연도	97.1	98.1	99.1	99.11
비율(%)	43.3	49.6	55.5	59.2
*비율(%)	(100)	115	128	137

* 주 : *비율은 97.1월을 100으로 보았을때.

현재 정부에서는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 송아지가격안정제도, 다산우 장려금제도, 거세장려금제도 등을 실시하면서 번식기반을 유지 또는 확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번식농가 육성과 장려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중 중요한 사업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 송아지가격안정제도, 다산우 장려금제도, 거세장려금제도를 실시하면서 번식기반을 유지 또는 확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송아지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우사육농가의 심리적 불안요인을 해소시키는 일이 급한 문제이다.

양축농가 자신도 우선 먹기는 곳감이 달다고 손쉬운 암소비육형태의 틀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아울러 수송아지도 씨수소의 후보 등을 제외하고는 전 두수 모두 거세하는 작업을 하루빨리 실현시켜야 한다.

이제까지 공급되던 암소비육쇠고기는 모두 거세우로 대체하는 길만이 번식기반을 유지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라도 개량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99년말 약 180천여 두의 등록된 한우가 길러지고 있다.

이중에는 최근에 등록된 한우도 있으나 그 동안 계속 혈통을 유지하여 5대이상의 등록우도 있다. 소규모 번식농가는 고령화되고 그 후계를 이어갈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번식농가의 후계를 이을 수가 없다. 더구나 상수원보호지역, 오폐수방출문제등 환경문제도 점차 사육여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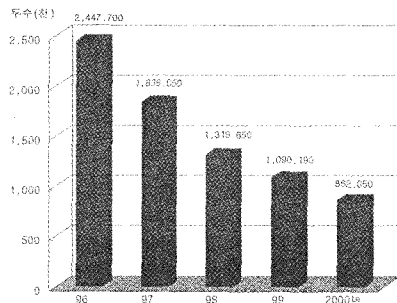
영세 번식농가를 중심으로 경영의욕 감퇴에 의한 사양포기는 급격한 감소와 함께 개량용 종축이들에 의하여 길러지다 보니 20여년을 개량한 고등등록우등 귀중한 육종자원으로 되었던 우량번식우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었다.

3대나 5대이상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종축은 매우 중요한 유전자원이다. 이들을 특별히 보존하고 개량자원으로 활용하여 중모우의 선발과 현장

암소비육이 성행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개량된 암소의 무분별한 도축이다. 그 동안 정부와 개량기관에서는 한우를 개량하기 위하여 많은 자금과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였다.

한우 개량농가육성사업만 하여도 79년부터 한우개량단지(전국8개소)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은 전국 250개의 개량단지와 농가를 육성하고 누구

[표 4] 연도별 한우정맥혈통확인



연도	96	97	98	99	2000.12(추정)
확인두수	2,447,700	1,838,050	1,319,650	1,090,190	862,050
비율(%)	100	75.1	53.9	44.5	35.2

2001년부터는 이제까지의 개량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체단층촬영』, 『DNA검사』 사업을 실시하여 지금보다 두배, 세배의 높은 개량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실시 할 계획이다.

후대검정사업 검정교배용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양축농가에서는 두수도 얼마 되지 않고 젖소와 달리 개량의 효과를 번식농가가 크게 거두어들이지 못하니 아무 의미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양축농가에서는 그 동안 인공수정에 의한 개량 사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다. [표4]에서 보는 것과 같이 96년도에 2,447만개의 정액이 소요되었으나 99년에는 44.5%밖에 되지 않는 1,090천개만이 소요되었을 뿐이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금년 말에는 약 850천여 개의 정액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우리 나라의 개량경쟁력은 소규모 번식우 사양관리가 가장 큰 경쟁력이었다. 소규모 번식우 관리는 1두마다 개체관리가 쉬우며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펴가면서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이나 일본 등에서 미국이나 호주 등의 방목형보다 가축개량 경쟁력도 높으며 인공수정 율도 매우 높았던 요인이었다.

그러나 한우의 다두화 경향과 암소비육의 성행에 따라 개체마다 관찰하고 인공수정을 하기보다는 비육용 수소를 넣어 자연교배를 시키니 번식기반의 붕괴는 물론 개량기반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우사육농가들은 자신들의 발등을 자기가 찍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한동안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니 결국은 송아지 생산이 어려워지고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송아지는 더욱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다행스런 현상은 남보다 빨리 현실을 직시하여 지역별 한우협의체를 만들어 향후의 송아지 생산과 공급은 시,군지역 자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번식관리를 위하여 간이 스탠촌(목걸이)시설을 하거나 조사료 기반 확보를 위하여 눈에 보리를 갈아 엔실리지를 담그는 등의 노력을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표 5] 한우개량농가 등록우의 산차별 분포

산 차	두 수	비 율
1산차	21,249	39.5%
2산차	12,096	22.5%
3산차	8,303	15.5%
4산차	5,697	10.6%
5산차	3,330	6.2%
6산 이상	3,062	5.7%
계	53,737	100%

* 자료 : 농협 한우개량부(99.12)

[표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우개량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의 산 차별 분포는 1~2산이 62%이며 3산 이상은 38%로 20,392두 밖에는 기르지 않고 있다.

아무리 능력이 좋은 소를 개량하여 놓았다 하더라도 송아지 생산을 1~2산밖에 하지 않고 비육하여 도축한다는 것은 정말로 귀중한 유전자원의 낭비이다.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은 유전자원을 오랫동안 기르면서 우량한 후대의 유전자원을 계속해서 생산에 참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정부에서도 3산 이상 번식하면 10만원, 개량단

**이제까지의 경영개선은 경비를 절감하는 일변도였지만
이제부터는 경비를 절감하는 것과 병행하여 수입을 늘리면서
경영안정화에 노력하는 것이다.**

지 등록우종 5산 이상 번식하면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다산우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양축농가도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에 좋은 암소를 가진 양축농가가 귀하신 몸이 될지도 모른다.

2001년부터는 이제까지의 개량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체단층촬영』, 『DNA검사』사업을 실시하여 지금보다 두배, 세배의 높은 개량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개량농가에서 사육중인 고등등록우 중에서 육질능력이 우량하다고 판정되는 암소를 선발하여 고급 육생산용 종모우를 생산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종모우(아비)에 의한 개량의 두배이상 개량효과를 거두게 되고 개량의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만일 수정란이식의 대상빈우로 선정된다면 그 암소는 매우 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될 수도 있다.

미국 육우산업의 과잉생산이 위기가 되면 당연히 해외로의 수출공세가 심화 할 것으로 되며 일본의 육우 생산관계자도 등한시 할 수 없게 된다.

육우의 세계에서 20세기와 21세기의 차이는 순조롭게 소비가 확대되던 시대에서 쇠고기소비도 확대기조의 지속이 어렵고 정체기조의 돌입위험에 있는데 이는 세계축산선진국의 공통현상이다.

육우부문에 있어서도 육우경영자의 능력향상이 가장 중요한 경영과제로 되어 있다.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경영자의 조건은 경영

관리의 원리원칙에 맞고 경영운영이 가능한 생각을 가짐과 아울러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영능력을 가져야 한다. 경영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요소이며 이에 기술이 부여되고 최근에는 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육우산업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어 혼자 독불장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의 육우산업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경영을 살리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육우산업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장래전망을 시험하여 보고 있으며 그곳에서도 농장폐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육우사양두수는 10% 감소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만일, 미국 육우산업의 과잉생산이 위기가 되면 당연히 해외로의 수출공세가 심화 할 것으로 되며 일본의 육우 생산관계자도 등한시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여 수입쇠고기와의 대항책을 강구하여둘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육우경영 체질개선을 해 놓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경영개선은 경비를 절감하는 일변도였지만 이제부터는 경비를 절감하는 것과 병행하여 수입을 늘리면서 경영안정화에 노력하는 것이다.

수입을 늘리는 것은 생산량의 증대와 판매단가의 상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판매단가의 상승에 있다.

판매단가의 상승은 육질의 향상과 판매단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고 판매조직을 확립하는

**21세기에 있어서 육우산업의 구축을 위해서 여러과제가 쌓여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쇠고기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소비자로부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다.**

것이다.

21세기를 전망한 육우경영의 구축을 위해서는 육우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환경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이것은 정책과제로서도 호응하는 것인데 가격지로부터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전환에 대처하여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쇠고기에 대한 국경조치에 대해서는 관세등 일정의 수입장벽을 지속하여 놓을 필요가 있다. 알뜰으로 수입쇠고기와 경쟁하는 것은 토지조건등에서 보아 곤란할 것이다.

21세기에 있어서 육우산업의 구축을 위해서 여러 과제가 쌓여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쇠고기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소비자로부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는 왕인 까닭에 유전자전환 식품에 대한 의문도 있고 클-론우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현상에서 가능한 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시인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하는 표시를 자신이 제시하여야 한다.

소비자로부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HACCP(위해분석주요관리점)방식에 의한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위생관리 시스템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도축장에서의 위생관리가 문제로 되어 시설의 개선, 처리방식의 변경 등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함께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21세기의 육우산업은 이제까지의 개별경영체질강화와 아울러 식품의 안전성, 환경보전, 농촌경관의 보호유지 등 여러 항에 걸친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

한 것이 현실적 과제로 되어 있으며 장밋빛 육우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육우경영자의 종합적인 경영능력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가. 신 육용우 경영

일본에서는 1999년 7월에 새로운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공포 하였다.

1961년의 구 농업기본법에서는 고도경제성장에 적합한 것이며 현재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 새로운 기본법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육용우 경영에 있어서도 구 법시대의 수입사료 의존형의 규모확대 지상주의 에서 사료자급율의 향상과 환경보전 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육용우 생산자의 시점에서 지속적인 최대수익을 확보하는 생산합리주의에 한해서 뿐만 아니라 사료자급율의 향상, 환경보전, 농촌경관보호유지, 국민경제, 소비자, 지구환경 등의 시점에서 재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단기적인 개별경영의 수익추구형 경영에서는 농후사료 의존의 규모확대 지상주의에 빠져들 위험성이 있는데 21세기형의 육용우 경영에서는 광의의 시점에서 육용우 경영을 세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새로 제정된 농업기본법에서는 식량의 안전보장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의 선진국 가운데서도 사료자급율이 매우 낮고 곡물 자급율은 41%로 되어 있다. 세계 선진국은 미국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100%전후의 식량자급을 확보하고 있다.

쇠고기 자급율은 1996년도 평균 38.7%, 쇠고기



부문의 자급율은 27.9%이기 때문에 공급열량수준의 순 자급율은 10.8%로 된다. 이렇게 축산부문의 순 자급율은 극히 낮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부문에서도 6~7%의 자급율을 이루게 된다. 수입사료의 존이 높은 육용우부문의 사료자급율 향상이 특히 21세기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나. 금후 일본의 쇠고기 소비변화

소비의 장래동향이라는 것과 그 내용에는 2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소비량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와 변화면 어느 정도가 변화할 것인지 하는 양(量)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소비되는 쇠고기의 기호로 고급육이든지 저급육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질(質)적인 예측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래동향의 예측은 5년후나 10년후에는 소비량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는 양적인 예측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서 검토하려는 것은 그러한 1인당 소비량의 수량만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쇠고기 소비의 양과 질의 양 측면의 변화방향과 그 근거에 대하여 검토한다.

① 양(量)적 측면의 검토

우선, 양적인 측면의 변화방향은 어떠한 것인가?

공적인 자료로 정부기관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은 [표6]과 같다.

이 표는 사료·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어 그에 기초하여 책정된 『사료·농업·농촌기본계획:2000. 3. 24. 의결제정』에서 나타난 2010년 식육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다.

『추세시산식』은 최근의 동향을 기초로 해서 그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의 수준을 시산한 것이며 그에 대하여 『바람직한 모습』은 영양밸런스를 고려하여 식품의 폐기나 먹고 남은 음식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전제로 하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소비수준을 전제로 한 것이다.

수량은 가식부분(지육대비율63%, 닭고기는 71%로 환산)에 한하여 정육으로 나타냈다.

우선, 추세시산식을 보면 2010년도의 소비량은 육류합계626만 톤인데 그 중에 쇠고기는 195만 톤, 연간 1인당소비량은 육류합계32kg, 쇠고기 9.5kg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까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95년도치 수준과 비교하면 육류합계의 총량은 112.4%, 연간 1인당 소비량112.3%, 쇠고기 총량127.5%, 연간 1인당 소비량은 126.7%이고 돼지고기 총량은 105.7%, 닭고기총량은 109.9%이기 때문에 그 중에 쇠고기가 무엇보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6] 식육소비량의 추세와 바람직한 자세

(단위 : 만톤, kg, %)

구분	95년도(a)	98년도(b)	2010년 추세치	바람직한 모습	(b)/(a)	(c)/(a)
쇠고기	153(7.5)	150(7.3)	195(9.3)	127.5(126.7)	127.5(126.7)	108.5(106.7)
돼지고기	210(10.3)	213(10.4)	222(11.0)	106.7(106.8)	106.7(106.8)	88.6(87.4)
닭고기	182(10.1)	180(9.9)	200(11.0)	109.9(108.9)	109.9(108.9)	94.5(93.1)
육류계	557(28.5)	552(28.0)	626(32.0)	112.4(112.3)	112.4(112.3)	95.9(94.7)

※ 자료: 농림수산성대신 관방조사과<1998년도식료수급표>속보 및 2000년 3월 각의결정 사료농업 농촌 기본계획
주: 수량은 가식부분으로 환산한 순 음식, 95년도와 98년도는 실적 치로 95년도는 육류계와 쇠 고기가 과거 최대를 나타낸 연도, 2010년은 기본계획에 의한 추정치

『바람직한 모습』에서는 95년도 대비 증감율이 쇠고기총량108.5%, 돼지고기 총량88.6%, 닭고기 총량94.5%로 쇠고기 이외에는 대부분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생각하는 음식물소비의 바람직한 모습의 전체 상은 (표7)과 같다.

여기서 『바람직한 모습』과 『추세치』의 대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유, 유제품이나 계란을 포함해서 바람직한 모습에 있어서 축산물의 감소가 크며 표시한 14개 품목 중에서 육류가 무엇보다도 크게 소비를 축소할 품목으로 되어 있다.

[표 7] 추세치와 바람직한 모습의 비교(2010년도)
(단위 : kg, %)

구분	추세치(a)	바람직한 모습(b)	(b)/(a)
쌀	62.0	66.0	106.5
보리	33.3	33.3	100.0
강서류(감자, 고구마등)	23.3	24.4	104.7
야채	95.0	108.8	113.7
과일	41.0	39.0	95.1
우유, 유제품	106.0	100.0	94.3
육류	32.0	27.0	84.4
계란	18.0	16.0	88.9
설탕	21.0	20.0	95.2
유지류	16.0	14.0	87.5
차	0.8	0.8	100.0
어패류	36.0	35.0	97.2
해조류	1.4	1.3	92.9
버섯	3.3	3.1	93.9

구 농업기본법시대의 농업정책 추진에 있어서 참조되어야 할 것으로서의 추세를 기본으로 하여 책정되었던 전망에 비하면 사고방향의 커다란 전환일 것이다.

신 기본법 아래 있어서의 기본계획은 식량자급율 향상목표를 명시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모습은 그와 관련시켜 설정되고 있다.

축산물의 소비가 축산물 그 자체의 수입과 사료 수입의 2가지 면에서 사료 자급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렇다해도 바람직한 모습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소비방향이냐 소비량을 정책에 의하여 규제가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로지 소비자의 대응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것에서 생각한다면 식육소비의 객관적인 장래동향은 『추세시산식』에 나타난 것에 의한 것이 좋다.

구 농업기본법 아래서 책정된 최후의 『농산물수요와 생산의 장기전망(95년12월발표)』에서는 2005년을 목표로 하여 육류의 소비총량 605-649만톤, 연간 1인당 33-35kg, 쇠고기는 182-214만톤으로 연간 1인당9.6-11kg으로 전망하였다. 그것에서 보면 새로운 기본계획의 추세시산식 또한 약간 제재된 것도 있을지 모르겠다.

② 질(質)적 측면의 검토

양적인 한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쇠고기 소비의 질적 측면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인데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표 8]은 1998년도 12월에 일본 동경과 신나천(神奈川)현대의 일반가정 1,0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양케트 조사의 결과를 정리 한 것이다. 설문은 식육소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회답 세대수는 449세대로서 일부지역의 일부세대지만 일반 소비자의 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참고하기 바란다. 이것은 현재와 장래에 대하여 식육을 선택하는 경우의 사고방향을 아래의 4가지로 나누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 한 것이다.

- 다소 맛이 없어도 가격이 싸면 많이 먹는다.
-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맛있는 것을 알맞게 먹는다.
-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맛있는 것을 가능한 많이 먹는다.
- 가격이 싸도 알맞게 밖에는 먹지 않는다.

[표 8] 식육소비에 관한 의식

(단위 : kg, %)

구분	현재	장래
싼 것을 많이 먹는다	33(7.6)	5(1.7)
비싼 것을 많이 먹는다	33(7.6)	17(5.7)
비싼 것을 알맞게 먹는다	281(64.4)	231(77.0)
싸도 알맞게 먹는다	89(20.4)	47(15.7)
계	436(100)	300(100.0)

* 자료: 1998년 12월 실시 앙케트 조사결과

주: 회답한 449세대중 모르겠다 라고 응답한 세대를 제외한 회답의 결과

우선 현재에 대해서 보면 무엇보다도 많은 것이 『비싼 것을 적당히 먹는다』로 명확하게 회답한 436세대중 281세대로 전체의 64.4%, 다음으로 많은 것이 『싸도 알맞게 먹겠다』로 회답한 세대수는 89세대로 전체의 20.4%, 『싼 것을 많이 먹는다』 『비싼 것을 많이 먹는다』는 각각 33세대로 전체 7.6%를 점할 뿐이다.

양보다도 질의 의식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비싼 것을 알맞게 와 싸도 알맞게를 합한 알맞게를 합친 세대가 거의 85%에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향은 장래에 한층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래에서는 『비싼 것을 알맞게 먹는다』가 77%로 증가하고 여기에 『싸도 알맞게 먹는다』를 15.7% 더하면 93%에 가깝게 된다.

그 반면 『싼 것을 많이 먹는다』가 1.7%로 감소하고 『비싼 것을 많이 먹는다』도 5.7%로 현재보다

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회답은 회답자의 연령층이나 소득수준에 의해서도 변하는 것이 예상되지만 세대주의 연령층은 40대 76.3%, 50대 19.8%로 둘을 합하면 96%로 된다. 극히 젊은 사람도 없고 노년도 없는 성장층세대의 의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수준과의 관계에서는 600만엔 미만 57세대, 1000만엔 이상이 141세대이고 나머지 세대는 600~1000만엔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득계층별 회답결과를 보면 『비싼 것을 알맞게 먹는다』가 600만엔 미만 층과 600~800만엔 층에서 각각 60%, 800~1000만엔 층과 1000만엔 이상 층에서 각각 70%를 점하여 서로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싸도 알맞게 먹는다』는 600만엔 미만 층에서 30%, 600~800만엔 층에서 24%, 800~1000만엔 층 18%, 1000만엔 이상 층에서는 16%로 소득계층의 다름에 의하여 다소 치우치게 나타났다.

『비싼 것을 많이 먹는다』는 600만엔 미만 층이 1.8%에 머무른 데 대하여 600만엔 이상의 각 층은 10%전 후로 소득이 다소 반영하고 있으며 『싼 것을 많이 먹는다』는 600만엔 미만 층이 9%, 600~800만엔 층이 7%대, 그 이상의 각 층에서는 5%대로 이것도 또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을 총체적으로 보면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계층에서도 『비싼 것을 알맞게 먹는다』가 무엇보다도 많고 『싼 것을 알맞게 먹는다』와 합해서 이 계층에서도 85-90%의 범위에 있다. 각 소득계층을 통해서 양보다도 질을 추구하는 의식이 강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일본에서도 소비수준의 향상과 고기섭취율 증가에 따라 『상강육』이나 『적육』이나를 가지고 향후의

쇠고기 생산에 대응 할 것으로 보여지나 비싼 고기를 알맞게 먹는 의식은 계속되어지며 우리 나라와 달리 음식을 적게 먹는 일본인들의 특성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5. 결론

현재 우리가 당면한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이미 10년전인 1991년4월1일 개방후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향후 대처할 상황은 무엇인가?
비록 일부분에 국한한 내용이지만 이제 한우사육농가에서는 눈앞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것도 해야 하겠지만 향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일본은 순수 육용종 사육두수가 1,700천두로 한우두수와 비슷하며 이들도 암소1,069천두중에서 순수한 송아지 생산용 암소는 불과 635천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우의 번식기반이 화우의 번식기반보다 못하지만은 않은 셈이다.

일본인들도 우리와 같은 걱정은 하고 있으나 향후 10년앞을 내다보면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잘살기만 한다면 쇠고기소비량은 우리 나라가 더욱 많이 소비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 그들은 오래 살기 위하여 맛있는 고기를 적당하게 먹을지 몰라도 우리는 맛있는 고기가있다면 가능한 한 배불리 많이 먹을 것이다.

그들과 우리와는 음식접대문화가 다른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다. 우리는 어디 가서 삼겹살을 먹어도 2인분, 3인분 많이 먹어야 잘먹었다고 하지

겨우 1인분으로 접대하려다 는 사주고 육먹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우사육농가 여러분!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 걱정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이 난관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누령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개량하고 키워 나아갑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소를 키우는 여러분들은 신선입니다. 왜냐하면 소는 옛날부터 신(神)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흰 소를 신으로 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옛날부터 소를 신성(神聖)시 하였답니다.